행복으로 가는 길

طريق السعادة باللغة الكورية

Prof. Dr. Abdurrahman Al-Sheha 저

최영길 옮김

www.islamland.com

213

도서출판 알림

최영길 프로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아랍어를 전공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이슬람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이슬람학을 전공하고 수단 움두르만 이슬람 국립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슬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젯다 이슬람문화원에서 아랍어와 이슬람 담당 전임교수로 근무하였고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대학교 초청객원교수, 명지대학교 인문대학장, 중.고등학교 아랍어 국정교과서 교재 편찬 심의위원, 숲사랑소년단 이사장, 국제자연환경 교육재단 이사장,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이슬람회의 기구 집행이사, 그리고 IMAX 벤처기업과 LG 전자 자문교수로 있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에서 이슬람관련 과목을 강의하였고 (재단법인)한국이슬람교 사무총장과 할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아랍지역과 명예교수, 메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이슬람 총연맹 최고회의 위원,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이사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원 강사로 있다.

꾸란의 의미 번역을 비롯하여 예언자 무함마드, 인간 무함마드,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무함마드의 언행록, 아랍어-한글 사전, 꾸란 어휘사전, EBS 입에서 톡 아랍어, 이슬람문화, 아랍에서 출발한 이슬람역사와 문화,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초보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 이슬람 지식, 인생교과서 무함마드, 이슬람과 에티켓, 이슬람의 로맨스 등 73편의 아랍어와 이슬람 관련 역서와 저술을 두고 있다.

1970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 메달을 받았고, 1986년에는 서울 아시아올림픽 조직위원회 포상, 200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 국제번역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표창 그리고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차 례

*역자 서문 / 5

*저자 서문 / 7

제 1장 : 진정한 행복 / 13

1.행복의 종류 / 13

2.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원합니까? / 14

제 2장 : 이슬람의 복종과 자제 / 26

1.이자 / 26

2.간음과 간통 / 27

3.음주 / 28

4.돼지고기 / 29

5.동등한 처벌권 / 30

제 3장 :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 32

1.하나님에 대한 믿음 / 32

2.천사들에 대한 믿음 / 38

3.성서들에 대한 믿음 / 38

4.행복으로 안내하는 이슬람의 가르침 / 39

5.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 87

6.종말에 대한 믿음 / 88

7.운명과 숙명에 대한 믿음 / 90

*용어 풀이 / 109

*역자 서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행복은 스스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찾아가야 하는 것일까? 꾸란은 인간에게 현세의 행복과 내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주여, 현세에서도 행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행복을 주소서."(꾸란 2:201)

현세의 행복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시간만 제외하고는 지구촌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노동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예배를 마치면 지구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해야 되느니라."(꾸란 62:10)

행복은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할 때 온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고, 자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

하고,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할 때 온다.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불행이다.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이요 큰 것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이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도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면 그것이 곧 행복이요 부자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은 부자도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불행이요 가난한 사람이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것이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이다. 저자는 본서에서 꾸란과 예언자의 말씀에 근거한 행복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안내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산책해 보기 바란다.

끝으로 이슬람문화사업, 특히 장학 사업에 끊임없는 후원을 해주고 있는 고팔용 사장님과 어느 날 천사처럼 나타나 이슬람문화사업 후원을 약속하면서 본서 출간지원과 5명의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달라고 일정금액을 위탁한 김희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 1. 29

역 자

* 저자 서문

독자에게

이슬람은 완성된 총체적인 신성한 종교이자 생활 방식이다. 이슬람은 현세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와 내세에 갔을 때 화평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슬람에는 결함이나 오점이 없다. 그래서 이슬람은 삶의 완벽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어떤 한 무슬림의 언행에서 목격된 벗어난 행동이나 비정상적인 처신은 이슬람이 아니다. 그러한 탈선이나 나쁜 처신은 믿음에 대한 결핍된 지식이나 허약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을 어떤 한 무슬림 개인의 언행과 처신에 근거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언자이신 무함마드와 그분의 가문과 그분의 교우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주소서.

잠깐 시간을 내어 본서를 읽는 독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발

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에 대한 선입감을 버리고 끝까지 본서를 완벽하게 읽어보기 바란다. 책 표지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며 대충 읽어도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나의 생각에 독자 여러분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심사숙고 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천체를 중심으로 한 행성들과 은하계의 복잡한 상호관계 그리고 우주의 빈틈없는 질서를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러한 상호관계와 질서가 그것을 지탱하여 주는 실체가 없는데 가능할까? 만일 그러한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 우주는 혼돈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양이 달을 잡을 수 없으며 밤이 낮을 추월하지 못하니 각자는 각자의 궤도를 법칙에 따라 운행하느니라(36:40)

이러한 천체들의 질서정연한 궤도운행도 절대자께서 멈추게 하면 혼돈이 시작되고 현세의 삶도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갈라지고 별들이 흩어지고 떨어지며 바닷물이 솟구쳐 흘러나오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노출되느니라(82:1-4)

절대자는 이 모든 것들을 왜 존재하게 하였을까?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게 하였을까? 우리 인간 역시 우리를 존재케 한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절대자께서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한 방법은 어떠했으며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들이여 무엇이 너희의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었느뇨 너희를 창조하사 완벽한 형상을 만든 후 균형을 이루게 하여주신 분이 누구시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너희의 형상을 만드셨느니라(82:6-8)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쓸모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각자의 목적과 몫이 있고 그 안에는 그것을 존재케 한 창조주의 신성한 지혜와 목적이 내재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아무런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창조하였으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뇨 그러므로 주권자이시

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께서는 옥좌의 주인이시니라(23:115-116)

주변의 세계를 둘러보고 우주를 관찰해보면 이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이것들을 존재케 한 실체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인간의 본성과 건전한 이성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것들을 존재케 한 어떤 위대한 절대자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서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원하며 하늘과 땅의 존재를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니라 주여 당신은 아무 뜻 없이 창조하지 아니 하셨나니 당신께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저희를 불지옥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3:191)

무(無)에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이르게 하고 다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할 다른 세상을 창조하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루마리 종이를 마는 것처럼 내가 하늘을 접어버릴 그날을

상기하라 내가 첫 창조를 했던 것처럼 재창조할 것이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약속한 것이니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니라(21:104)

이 세상과 우주가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운명을 맞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여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 그곳에 가면 현세에서 행한 것에 대한 업적평가를 받게 된다. 업적평가가 좋은 자는 영원한 축복의 보상을 받으며 나날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끊임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낼 것이다. 무(無)에서 인간을 창조한 절대자께서는 인간을 쉽사리 재창조 하실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조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것은 그분께 가장 쉬운 일이라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강하시며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니라(30:27)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세계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을 보면 알 수 있다. 죽은 땅으로 생각되었던

그곳에 비가 내리면 사막은 물을 머금고 그곳에서 식물의 싹이 돋아난다. 이러한 지역에서 생명이 싹틀 수 없다는 잘못된 고정 관념을 없애준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증거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증표 중에 불모의 대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리니 생명이 싹트고 수확이 증가하지 않느뇨 실로 죽은 대지를 소생시키는 분은 죽은 자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라(41:39)

제 1장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다. 외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내적인 만족이다. 인간은 자신만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할 때 행복의 느낌은 더 커진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지속적인 즐거움, 지속적인 만족, 지속적인 기쁨의 느낌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행복은 자신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운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1. 행복의 종류

첫 번째 행복은 잠시 동안 있는듯하다가 사라지는 순간적인 행복이다. 이러한 행복은 외적인 영향에서 오는 것이다. 음주나 마

약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잊으려 한다. 약품 남용은 행복의 환상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그 환상도 순간에 불과하다. 이들은 순간적인 행복의 환상을 쫓아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 결국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 더 나아가 이들은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일반적 질병을 확산시키다.

두 번째 행복은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 오는 행복이다. 이러한 행복은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첫 번째 행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목표를 성취한 후 순간의 행복을 느낀다. 그러고 나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무엇을 찾지 못하면 방황한다. 그 순간부터 정신적 피로가 시작된다.

세 번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다. 이 행복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되는 행복이다. 기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화가 나도 행복하다. 건강할 때도 행복하고 몸이 아파도 행복하다. 부자가 되었을 때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하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2.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원합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답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음과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확고하게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성취한다. 재물을 행복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을 행복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많은 친구들을 갖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에게 실제로 진정한 행복을 성취했느냐고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진정한 행복은 지속적인 정신적 희열과 마음의 평화이기 때문이다. 지구만큼이나 무거운 금덩어리를 얻은 자가 있다 해도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잠은 절대로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를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리하

게 한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고 비논리적인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참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정신적 공백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만 회복이 가능하다. 진실한 믿음만이 진실한 목표달성에 기여한다.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자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 쉽게 얻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일 뿐이다. 진실로 행복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절대자 창조주에게 복종(islam)함으로서만 가능하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요 진리다. 확실하게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인 꾸란과 그 말씀을 전한 예언자의 전통인 순나(sunnah)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행복의 정의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지속적인 즐거움, 지속적인 만족, 지속적인 기쁨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행복한 느낌은 자신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운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슬림 남녀와 믿음이 있는 남녀와 순종하는 남녀와 진실한 남녀와 인내하는 남녀와 두려워하는 남녀와 자선을 베푸는 남녀와 단식을 행하는 남녀와 정조를 지키는 남녀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원하는 남녀를 위해 관용과 큰 보상을 준비하여 두셨느니라(33:35)

창조주께서는 현세의 만족을 보장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가장 훌륭한 공동체의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멀리할 것이며 하나님만을 믿으라 만일 성서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에게 축복이 더했으리라 그들 중에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죄를 범했느니라(3:110)

창조주께서는 내세의 만족도 약속하셨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가장 높은 천국을 살 곳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 그들은 그 안에서 영생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18:107-108)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사이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정신과 영혼의 안정을 주는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인위적인 제도, 변질된 종교나 사이비 종교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논리적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붕괴된 구소련 공산주의와 현재의 자본주의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것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거짓 이념과 근시안적 생각에 바탕을 둔 인위적 제도들이기 때문이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어떤 것 하나를 기억하고 당신에 대한 많은 다른 것을 잊었습니다."

이 속담은 근시안적 생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 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인위적 제도는 대부분 어떤 몇 지도자들의 개인적 이익만 생각했을 뿐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혹은 공동체만 생각했을 뿐 각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 현세의 이익만 생각했을 뿐 내세는 무시해버렸다. 결론적으로 공동체를 무시한 개인을 위한 제도이거나 개인을 무시한 공동체만을 생각한 제도에 불과할 뿐이다. 인위적 제도가 더욱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은 정신세계를 무시한 물질 우월주의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슬람은 개인과 공동체, 정신과 물질 사이의 균형과 조화에 역점을 두

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창조주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중용의 한 공동체를 선택하여 주셨나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증인이 될 것이며 사도 또한 너희들에 대한 한 증인이 될 것이니라(2:143)

다음은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그분의 교우인 압둘라 빈 우마르에게 한 말씀이다.

"압둘라 형제님, 당신은 하루 종일 단식만 하고 밤새도록 예배만 드린다는 말을 들었소.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가 사실이라고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루 단식했다면 다음 날은 음식을 먹고 하루 밤 동안 예배에 집중했다면 다음 날 밤에는 수면을 취하세요. 당신의 몸도 당신에 대한 권리가 있고, 당신의 눈도 당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아내도 당신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요."(부카리)

자본주의자들은 정신과 영혼을 경시하면서 물질을 통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려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생의 정신적 측면을 무시한다. 서구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종교를 버리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물질추구를 우선으로 한 종교생활을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행복할까? 논리적이거나 건전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종교를 버리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고 하면서 거대한 부를 누리고 살았던 크리스티나 오나시스는 자살을 하였다. 그녀는 억만장자의 자녀로 부모가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을 물려받은 여인이었다. 그녀가 프랑스에 있을 때 한 방송국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이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맞아요. 나는 가장 부유한 여자에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가장 불행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그녀가 불행하다는 것은 인생의 정신적 측면을 무시하거나 경시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정신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다. 그리고 치료비 한 푼 들어가지 않는다. 창조주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된다. 방치된 정신병은 크리스티나 사건에서 보듯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개인소득은 물론 GNP나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국들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자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개인소득은 물론 국민총생산도 가장 낮은 가난한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이슬람권에서는 전 세계에서 자살비율이 가장 낮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필웨어스(Filweas)[1]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구는 정신적 공백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행복을 안겨 줄 수 있는 올바른 교리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행하게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올바른 종교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소수의 서구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이들의 신앙생활을 서구세계가 직접 목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매일 늘고 있다."

육체가 만족되어야 하는 것처럼 정신도 만족되어야 한다. 양쪽이 균형 있게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근심걱정이나 불안 또는 불만을 갖게 된다. 정신적 만족은 창조주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죽은 인간을 그분께서 부활시켜 현세에서 인간이 행한 것에 대한

1) 그는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참전한 후 꾸란과 이슬람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고 1924년에 이슬람으로 귀화한 영국 해군 장교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기독교 신자였다.

책임을 묻는다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인간은 살아생전에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원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노라 실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원할 때 오느니라 (13:28)

만족과 행복 그리고 희열은 창조주를 믿는 자(muslim)가 실천을 통하여 얻는 위대한 축복이다. 다음은 위협과 고문을 받고 시리아의 수도 디마스쿠스로 추방당한 후 그곳에 투옥되었던 이슬람의 한 거장 이븐 타이미야가 남긴 말이다.

"나의 천국과 정원이 내 마음에 있는데 적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그들은 절대로 나와 나의 천국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나를 투옥시킨다면 그곳은 나의 종교적 피안처가 될 것이요 나를 살해하면 나는 순교자가 될 것이며 나의 조국으로부터 나를 추방한다면 그것은 나의 행복한 여행이 될 것이라."

투옥되어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다. 이슬람은 물질적 부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완벽한 정신적 행복과 희열을 선사한다. 진실한 무슬림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행복하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도 그렇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도 그러하며 안정과 대혼란의 상황에서도 그렇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재앙이 그들을 덮칠 때 오 주여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당신에게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 그들에게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 그들은 바른 길로 인도 될 것이니라 (2:156-157)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요. 믿는 자들의 매사는 모두 축복으로 끝나지요. 이것은 단지 믿지 자들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은총을 받을 때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요. 이 또한 그에게 축복으로 돌아오지요. 믿는 자에게 재앙이 닥치면 그는 인내하지요. 이 또한 그에게 축복으로 돌아오지요."(무슬림)

이슬람은 만족과 인내를 강조하면서 근심걱정을 잊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인내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불만을 없애는 방법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친다. 반듯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슬람은 속세를 떠나 신부와 수녀 또는 스님이 되라고 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속세에 살면서 정당한 노동에 의해 얻은 재물을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슬람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하나님 사업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명분을 위해 중재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요 나쁜 명분을 위해 중재하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대가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니라(4:85)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백성을 다스릴 권한이 있고, 백성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는 가장이면서 가족을 위한 책임이 있으며, 여자는 가정의 주인이자 가족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재산을 지킬

권한이 있고 주인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알-부카리)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부모와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재물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자들은 구하는 자들이나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느니라(70:24-25)

다음은 부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아담의 자손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재물, 나의 재물'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이여, 너의 재산은 네가 사용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네가 입었던 옷은 낡아버렸으며, 다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가 자선으로 베푼 것만 너의 재산으로 너와 함께 남아 있느니라.'"(무슬림)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든 무슬림들을 위한 모범이셨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서로 그분을 사표(師表)로 삼는데 경쟁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의 교우였던 아부 다르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메디나에 있을 때 나는 예언자를 따라 우흐드 산까지 수행하였다. 다음은 길을 가면서 예언자와 주고받았던 이야기다.

예언자께서 나를 부르셨다. "아부 다르르" 나는 대답했다. "예, 사도님."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저에게 우흐드 산만큼의 금이 있다면 나는 부채상환에 필요한 정도만 남기고 그것을 3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셨다.

"부활의 날이 되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재물은 사용한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수가 될 거에요."(알-부카리)

* * *

제 2장
이슬람의 복종과 자제

이슬람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슬람 생활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금기사항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활동을 불편하게 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신성한 법이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절대자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아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주께서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다.

1. 이자(riba)

다음은 이자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2:278)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자는 부정한 착취 수단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돈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의 돈을 노동의 대가도 치루지 않고 가져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자는 돈을 가진 강자가 돈이 없는 약자의 것을 착취하는 행위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자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비무슬림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자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자제도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2. 간음과 간통(zina)

서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확산되어 가고 서구사회의 성(性) 개방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성의 개방은 불륜과 성병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간음하거나 간통하지 말라 실로 그것은 부끄럽고 죄악으로 가는 길이니라(17:32)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불륜이 퍼지면 전 세대에 알려지지 않는 성병까지 전파되지요.”(이븐 마자)

3. 음주(khamr)

음주의 위험은 이미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된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니라 사탄은 술과 도박으로써 너희 서로 간에 원한과 증오를 유발시키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원하며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려 하느니라 그래도 너희는 단념하지 않겠느뇨(5:90-91)

음주를 금지하는 의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음주 때문에 매년 수백만이 사망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몇 가지 병을 언급하고 한다.

*간장병

*다양한 형태의 암
*위 식도염, 위염, 췌장염, 간염
*심근증, 고혈압, 후두염, 심장병
*뇌졸증, 발작증, 졸증, 협심증, 심장병
*발작, 졸증, 일혈, 발작, 경련, 다양한 형태의 마비증세
*신경장해, 외피 위축, 다양한 호르몬 장애
*빈혈증, 황달, 기형, 불구
*폐렴, 기종, 폐기종, 폐결핵
*임산부의 태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 돼지고기(khinzir)

돼지고기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현대 의학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특히 잘 익히지 않는 돼지고기를 섭취할 경우 그로 여러 질병이 유발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가 아닌 것과 목을 졸라 죽인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야생이 일부를 뜯어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

에 제물로 바친 것과 화살에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거늘 이것들은 불결한 것이니라 믿음을 거절한 자들이 오늘 너희의 종교를 해치려고 하다가 체념했나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 만족케 하였느니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기울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가 있느니라(5:3)

이와 관련하여 한스-헤인리 레커위그(Hans-Heinrich Reckeweg)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자는 그것을 닮아간다. 지속적인 돼지고기 섭취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사람은 그가 먹는 것을 닮아갑니다."[2)]

5. 동등한 처벌권(qisas)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2) Biological Therapy Vol.1 No.2 1983.

이 동등한 처벌법은 생명을 보호함에 있나니 현명한 자들이여 의로운 신앙인들이 될 것이니라(2:179)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진리만을 말씀하신다. 동등한 처벌이 시행될 때 보다 많은 인간의 생명이 구제되고 명예와 재산이 더 많은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제도의 목적이 성공을 거두려면 제도가 강력하게 집행되어져야 한다. 그와 더불어 그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어 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절도와 강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절도범의 손목을 절단한다는 법이 제정되어 있어도 그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절도나 강도의 재범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고 법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정부상태의 혼란이 범람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동등한 처벌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언급된 신법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 안에 그들을 위한 법을 두었으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대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누구든 동등한 처벌의 권리를 포기한 자는 자선을 베푼 것이요 그리고 그를 위한 속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

로 판결하지 아니한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니라(5:45)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창조주께서 제정한 신법이 사회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인간이 제정한 법이 더 효과적인가? 인간이 제정한 법은 약자보다는 강자에게, 가난한 자 보다는 부자에게, 서민층 보다는 권력층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이 적용하고 있는 신법과 강력한 법집행과 같은 효과적인 제도는 없다.

* * *

제 3장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다음의 몇 가지 기본적인 믿음이다.

1.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태초부터 존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이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다. 이 길을 따라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워 질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상기하고 염원하며 마음의 평안을 발견하니 실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원할 때 오느니라(13:28)

이 길을 가게 되면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때 인간의 마음은 더욱 겸허해 지고 평안해 진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노라 졸음도 잠도 그분을 엄습하지 못하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겠느뇨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르니라 권자가 천지에 펼쳐져 있어 그것을 보호하는데 피곤하지 아니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 계시며 가장 거룩하시니라(2:255)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아프거나 슬플 때, 괴롭거나 고달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께 직접 간구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종들이 그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 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 서 나를 위해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부름에 따르라 나를 믿는 자들은 바른 길로 인도되느니라 (2:186)

불행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우주를 존재케 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 인식하도록 하셨다. 꾸란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무에서 스스로 창조되었느뇨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창조한 조물주이뇨(52:35)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홀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비유되거나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비유하거나 견주거나 동등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비유하거나 견주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나 그 외에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용서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비유하거나 견주려 하는 자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니라(4:48)

하나님께 어떤 것을 비유하거나 견주는 자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불완전한 것은 신성한 찬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칭송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모두 폐허가 되었을 것이라 권좌에 계시는 주님이시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이 묘사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시는

분이십니다(21:22)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로부터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아들을 두지 않았으며 나에 비유되는 신은 존재하지 않노라 만일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면 각 신들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빼앗아 갔을 것이며 일부 신들이 다른 신들을 지배했을 것이라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묘사하는 것을 초월하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23:91)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피조물에 매달리는 모든 형태의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운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분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형태의 정신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창조주만을 숭배하고 섬기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하늘과 땅의 주님이 누구시뇨 일러 가로되 하나

님이시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롭게 하지도 못하고 해롭게 하지도 않는 사신들을 보호자로 택한단 말이뇨 일러 가로되 장님과 앞을 보는 자가 같을 수 있으며 암흑과 빛이 같을 수 있느뇨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처럼 어떤 것들을 창조하는 사신들이 있다고 하더뇨 일러 가로되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하나님만이 지고하신 분이시니라(13:16)

2. 하나님만을 믿게 되면 그분만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들의 무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오직 사탄뿐이라 믿는 자라면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3:175)

하나님만을 믿게 되면 정신적으로 용감해진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인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운명이 그분께 달려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

울 것이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아니하나니 운명은 그분에 의해 정해져 있느니라(3:145)

불신자들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의지하고 간구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도하고자 원하시는 자의 가슴을 이슬람으로 활짝 여시며 방황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오를 때 느끼는 것처럼 그의 가슴을 죄어 답답하게 하시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니라(6:125)

2. 천사들에 대한 믿음

천사들은 인간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불가시계에 존재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지상에 있는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내리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계시를 전달한 천사는 바로 가브리엘이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사도 그리고 사도에게 전달된 성서와 너희 이전에 계시된 성서를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과 내세를 부정하는 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게 될 것이니라(4:136)

3. 성서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리신 성서들은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지침서다. 이 성서들을 일상생활의 지침서로 지키는 자는 그의 영혼과 육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가 하는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성서들이 지켜지는 국가이어야만이 정치와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행복한 삶을 부여할 것이요 그들이 실천한 선행에 대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할 것이니라(16:97)

행복한 삶이란 모든 분야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한다. 바르게 살 때 마음과 영혼이 편안해진다. 마음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복이요 모든 인간이 간구하는 진정한 행복인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과 사비인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건전하고 바르게 산다면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니라(5:69)

4. 행복으로 안내하는 이슬람의 가르침

이슬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과 매너를 강조한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은 믿음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현세의 행복도 그러하지만 내세의 진정한 행복은 절대로 맛볼 수 없다.

1)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도를 사랑하게 되면 믿는 자는 이 사랑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앞서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이란 대가가 없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바쳐서라도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재물을 바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믿는 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대가가 없는 사랑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서이지요."

현세의 삶에서 이러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노라 그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나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은 우상숭배자보다 더욱 강하니라 우매한 자들은 징벌을 맛볼 것이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벌은 엄격하시니라(2:165)

예언자의 교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예언자를 사랑했다. 예언자의 교우였던 쿨라이브 빈 아디가 다신교 불신자들에게 붙잡혀 처형되기 전 그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 죽기 전에 할 말 없소."

그러자 그 교우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탁이 있어요. 죽기 전에 예배를 하도록 허락해주시오."

그들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자 그는 두 번의 절(rakataini)을 하였다. 이것이 사형수가 사형되기 전에 두 번의 절을 하는 전통이 되었다. 예배를 마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조금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나는 예배를 좀 더 길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처형하려하면서 그에게 또 물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현재의 당신 위치에 있고 당신은 당신 가족과 함께 했으면 하고 바라지는 않나요?"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예언자에게 가시 하나 만큼의 상처도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예언자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먼저 채우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너희 선조들과 너희 후손들과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친척과 너희가 획득한 재산과 그리고 거래가 없을까 두려워하는 상품과 너희가 바라는 주거지들이 하나님과 사도와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욱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9:24)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고 그분의 사도를 사랑하려면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 그분의 사도를 위한 지속적인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 이전 이 도읍에 살면서 가정을 갖고 믿음을 가졌던 이들은 이주하여 온 이주민들을 사랑하였고 이주민들에게 베풀어진 것에 대하여 마음에 욕심을 품지 아니했으며 가난하면서도 자신들보다 더 이주민들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탐욕하지 않고 마음이 인색하지 아니했던 이들이 바로 번성할 자들이니라(59:9)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다음 세 가지를 갖게 되면 믿음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불신의 행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은 부활의 날에 있을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는 어떤 날 그분의 그림자 밑에 있게 될 사람은 일곱 부류가 있지요. 그들은 바로 올바른 통치자,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성장한 청년, 마음을 항상 모스크에 두고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서로 헤어지는 두 사람, 매혹적인 여인이 유혹을 할 때면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하

며 여인의 유혹을 피하는 자, 오른 손으로 행하되 왼손이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자,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알-부카리)

하나님에 대한 숭배가 곧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숭배는 자신의 마음을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완전 해방시키는 것이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난 후 텅 빈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원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명령한 것을 준수하고 그분께서 금기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모든 유혹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정한 행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시간을 헌신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슬람은 일시적으로 또는 경우와 사안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실로 나의 예배와 내가 바치는 제물과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6:162)

몬트가머리 와트(W. Montogomery Watt)[3]는 '이슬람이란

3) W. Montgomery Watt is a Scottish Orientalist.

무엇인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슬람을 공부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학생들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에 대한 그들의 편견과 선입관이다. 서양인들에게 종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에게 있어 종교란 라벨에 불과하다. 잘해야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가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교인들과 우정을 쌓거나 일상생활 문제들에 대하여 푸념을 털어놓거나 이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나쁘게 말하면 개인중심의 자기만족을 조성하고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거나 부를 자랑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장을 만들기도 한다. 국가와 법,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사회, 윤리와 도덕 전반에 걸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총체적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그들은 종교를 삶의 방식, 즉 생활의 종교로 삼지 않고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신이 내린 종교적 규범까지도 깨뜨린다. 서구사회는 종교를 정복자들이 정복지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착취하기 위해 고안해 낸 아편으로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 종교가 갖는 의미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정한 종교는 이슬람이니라.(3:19)

종교라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는 꾸란의 아랍어 단어 딘(din)

은 삶의 총체적 방법을 의미한다. 딘, 즉 이슬람 종교는 개인을 위한 사적인 것과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적인 것을 동시에 어울리고 있다. 신학적인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의 형태, 통치이념과 정치사상, 경제와 사회, 도덕과 윤리 등 인간생활에 필요한 총체적인 것을 담고 있다. 천사들과 예언자들 모두 하나님께 복종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 됨 이상으로 자만하지 아니했으며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그러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경배하기를 꺼려하는 자와 교만해 하는 자 모두를 당신에게로 모이게 하실 것이니라(4:172)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창조주의 위대함을 입증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곱 개의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나니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노라 다만 너희가 그들이 찬미하고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관대하신 분이시니라(17:44)

하나님을 숭배함에 멀리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참한 삶을 맛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경고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는 누구나 궁핍할 것이며 부활의 날 나는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 부활하게 할 것이니라 (20:124)

요약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탄의 꼭두각시인 것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 외면하는 자를 위해 나는 사탄을 두었나니 사탄이 그의 동반자가 되니라(43:36)

사탄은 그가 약속한 대로 인간을 오직 불행의 길로 유혹할 뿐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블리스가 말하길 주여 당신이 나를 방황하도록 하였기에 나는 지상에서 아담의 자손들을 유혹하여 모두가 방황하게 만들 것

이요(15:39)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다. 그 행복은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무한한 행복이다. 어느 한 무슬림이 느낀 진정한 행복의 소감을 들어보자. "만일 왕들이나 왕자들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행복을 알아차린다면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칼을 들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2) 마음의 행복을 찾는 것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있으며 그리고 영원한 행복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축복을 받을 자들은 천국에 있게 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기거할 것이니 이는 하늘과 땅이 존속할 때까지 영원할 것이라 실로 그것은 끝이 없는 선물이니라(11:108)

그러므로 현세에서처럼 재물을 많이 축적하려 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위한 지옥이요 불신자들을 위한 천국이지요."(아부 다우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불쌍한 삶을 살고 있고 무슬림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가? 이에 대답은 간단하다. 다음의 이야기가 분명한 대답이 될 것이다. 한 유대인이 이집트의 재판장 이븐 하자르 알-아스깔라니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위한 지옥이요 불신자들을 위한 천국이지요.'라고 말한 예언자의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믿는 자가 아닌데 무척 가난하여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인데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이븐 하자르 재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비록 어렵게 살고는 있지만 아직은 당신이 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징벌은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천국의 축복과 비유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난 그는 바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이슬람은 세상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 세상사가 미천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세상사에 집착하거나 깊이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흘 싸으드는 줄후나이파 지역에서 예언자와 함께 있을 때 그분께서 훈제된 양 한 마리를 보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훈제된 이 양이 주인에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압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 더 하찮은 것이지요. 만일 이 세상이 파리 날개 하나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무슬림에게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이븐 마자)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가장 훌륭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분들이다. 이분들은 온갖 시련과 수난을 겪은 분들이다. 피살을 당한 분들이 있었는가하면 박해를 받아 고향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자신이 속한 부족이나 민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이분들이 이러했는데 직위나 사회적 신분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어떠했겠는가! 어떤 시련에 직면할 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내 오십년이 모자란 천년을 머물게 하였노라 그리고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홍수가 저들을 덮치게 하였느니라(29:14)

다음은 예언자 아브라함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백성을 인도했을 때 저들의 대답은 이러했으니 그를 살해하라 아니면 불에 태워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로부터 그를 구제하셨으니 이 안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증표가 들어 있어있느라(29:24)

다음은 예언자 모세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파라오가 말하길 내가 모세를 죽일 것이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의 주님께 구원을 하도록 할 것이라 그가 우리의 종교를 바꾸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노라(40:26)

다음은 예언자 슈아이브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백성 중에 거만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말하길 슈아이브여 우리는 너와 그리고 너를 따라 믿는 자들을 우리의 고을에서 추방할 것이라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너희가 우리의 종교로 돌아오라 하니 슈아이브가 말하길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7:88)

다음은 예언자 살레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때 그들이 말하길 살레여 너는 우리 중에서 우리의 희망이었노라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조상이 숭배하던 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뇨 네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러울 뿐이라(11:62)

다음은 예언자 롯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백성은 이에 대답을 못하고 말하길 롯의 가족을 당신의 고을에서 추방하소서 실로 그들은 순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라(27:56)

다음은 예언자 예수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말하길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내가 다른 자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자 그 사람을 죽였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라 그들은 예수를 살해하지 아니 하였느니라(4:157)

다음은 예언자 무함마드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를 슬프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그들이 거역하고 있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6:33)

3) 삶의 목적을 아는 것

무슬림 각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를 성취하여 그분께서 준비하여 두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목적은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갔을 때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슬림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 있을 때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한편 믿지 않는 자들은 현세의 어떤 목적만을 추구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순간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미래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해한다. 그리고 안정을 찾지 못한다. 이들은 단지 일시적인 욕망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지 못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자들은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현세에 탐닉하며 동물처럼 음식을 먹는 자들의 거주지는 불지옥이 되게 하시느니라(47:12)

이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해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의 지식은 진정한 행복을 얻는데 무용지물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는 저들 대다수 불신자들이 듣고 또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느뇨 실로 저들은 가축들과 다를 바 없나니 저들은 바른 길에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노라(25:44)

어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멸망한 자들을 쳐다보지 말아요.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도 보지 말아요. 구제된 자들을 보아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아요."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옥을 둔 것은 많은 진들과 인간을 위해서라 그들은 가슴을 가졌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니 짐승과 같노라 실로 그들은 방황하는 자들이요 소홀이 하는 자들이라(7:179)

현세를 멀리한다거나 속세를 떠나 출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은 자신의 노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양식만큼 축복받은 양식은 없다고 하였다. 남에게 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빌어먹어도 안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대지를 유연하게 하여주셨나니 지구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베푼 양식을 얻으라 너희는 죽은 후에 하나님에게로 부활되느니라(67:15)

자신과 가족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자신의 지위는 향상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길을 나설 때 역시 자신의 지위는 향상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바치되 그 재산을 바라지 아니하고 뒷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들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있으며 두

려움도 슬픔도 없느니라(2:262)

이 세상은 마음의 의도와 행위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더 훌륭하지요. 그러므로 자선을 베푸시오. 가장 좋은 자선의 형태는 부유할 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사양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알-부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보상은 인간의 마음과 의도에 달려 있다. 부자가 하나님을 위해 길을 나설 마음과 의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의도에 근거하여 보상하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이 세상은 다음의 네 부류를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지식의 축복을 받은 자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있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이해하는 자가 있다. 이것이 최고의 위상이며, 그리고 지식의 축복은 받았으나 재물의 축복은 받지 못한 자다. 그는 마음의 의도가 순수하여 이렇게 말한다. '만일 나에게 돈이 있다면 누구처럼 이렇게 저렇게 할 텐데!' 그도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되지요."(알-티르미지)

4) 현세의 사실을 아는 것

이 세상은 스쳐가는 순간의 즐거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슬람은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인들과 자녀들과 금은보화들과 말들과 가축들과 농작물들은 현세의 즐거운 삶을 위한 것에 불과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은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곳이니라(3:14)

하나님께서 현세의 삶은 순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현세의 생활은 유희와 오락에 불과하며 허식과 권세도 그리고 풍성한 재물과 자손도 그러하거늘 그것을 비유하사 비온 뒤의 초목과 같아 농부들을 한 때 기쁘게 하지만 곧 시들어 빛깔이 누렇게 되고 메말라 부스러지는 지푸라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내세에서는 사악한 자들에게 가혹한 징벌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하나님의 관용과 기쁨을 받게 되니라 실로 현세의 삶은 현혹된 순간의 향락에 불과할 뿐이라(57:20)

현세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내세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할

뿐이다. 우마르 알-카탑이 예언자를 찾아갔다. 예언자의 등에는 허름한 매트리스에서 튀어나온 갈대 흔적이 보였다. 이를 본 우마르가 이렇게 말했다.

"좀 더 편안한 침대를 원하시면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현세를 위해 내가 무엇이 필요 하겠소? 나는 햇볕이 따갑게 내려쬐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나무그늘 밑에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여 여행하는 자에 불과하지요."(아흐마드)

현세의 삶은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함의 연속이다. 즐거운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웃는 날이 있으며 우는 날이 있다.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웃는 날은 없다. 이것이 현세의 삶이다. 이러한 현세에만 의존하고 내세에 대해 무관심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예언자께서는 교우였던 압둘라 우마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현세를 살아야 합니다."(알-부카리)

이 세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들은 즐겁지가 못했다. 스페인을 50년 6개월 동안 통치했던 우마이야조의 한 칼리프였던 압두라흐만 나세르는 이런 메모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번 주 이 날은 즐거웠다. 이 달 이 날도 즐거웠고 그 해 이 날도 즐거웠다." 50년 6개월 동안 그가 즐거웠다고 메모한 날들

을 합산해 보니 고작 14일에 불과했다.

다음은 현세에 대한 어느 한 시인의 글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네.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네. 즐거운 시간보다 슬픔 세월이 더 많은 것이 현세의 인생이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현세의 삶을 불평하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할까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한다. 맹목적으로 현세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현세의 물질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내세를 위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후회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며 결국 자신의 행복을 잃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심판의 날 보상을 받게 되니라 불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 이 세상은 단지 환상적인 향락에 불과하니라(3:185)

5) 좋은 친구와 함께 하고 그렇지 않는 친구는 멀리하는 것

동료는 동료로부터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료는 동료를 그와 함께 끌고 간다는 말이 있다. 좋은 동료로부터는 좋은 것을 배우나 나쁜 동료로부터는 나쁜 것만 배우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동료는 동료의 행복에 힘이 될 수도 있고 동료의 불행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좋은 동료와 나쁜 동료를 비유하여 말한다면 향수 상인과 대장장이와 같지오. 향수 상인은 당신에게 향수를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최소한 냄새라도 풍겨줄 수 있지요. 그러나 대장장이는 당신의 옷을 태우거나 불쾌한 땀 냄새를 풍겨줄 뿐이지요." (알-부카리)

좋은 동료는 친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큰 힘이 되어주고 재앙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며 하나님을 잊을 때 상기시켜 준다. 그러나 나쁜 동료는 정 반대다. 동료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등을 돌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더욱 불행해지기를 바란다.

6) 죄가 되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

죄가 되는 언행은 불행을 자초하여 진정한 행복의 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영원한 행복을 잃게 만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 않노라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노라(83:14)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믿는 자가 죄를 지면 하나의 검은 점으로 마음에 기록되며 그 죄를 회개할 경우 그 죄는 지워지고 그의 마음은 깨끗해지지요. 그러나 계속하여 죄를 진다면 어둠이 확산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말씀하신 더럼이지요."(이븐 마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예언자께서 죄의 위험을 분명히 밝히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천국의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되지요."(이븐 힙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실로 죄인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항상 그의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이란 자신이 저지른 것 죄로 인하여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다. 다음은 아므르 빈 사무라가 예언자를 찾아와 한 말이다.

"사도님, 제가 어떤 가족의 낙타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사도께서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훔친 손은 절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셨다. 싸을랍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의 손이 절단되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 나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이 절단 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린 그의 손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의 몸 전체가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8) 멸망한 자의 과거를 교훈으로 삼는 것

지나간 전 민족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죽음에 대비하고 그에 대한 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현세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현세의 삶은 반듯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

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할 줄 모른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망케 하였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한 세대를 지상에 정착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한 것을 주었느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여 물을 풍부하게 하여 주었고 물이 흐르는 강들을 두었노라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을 멸망케 하고 또 다른 세대를 두었느니라(6:6)

저들은 땅을 여행하면서 저들 이전 선조들의 말로가 어떠했음을 보지 못하느뇨 저들 이전에 살았던 자들은 저들보다 세력이 더욱 강성하였고 저들보다 땅을 더 잘 경작하여 저들의 번성함보다 더 번창하였노라 그러나 사도들이 징표를 가지고 저들에게 갔을 때 저들은 거절하여 결국 멸망하였노라 저들을 그릇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욕되게 하였노라(30:9)

아드와 사무드 백성의 이야기를 상기하라 이는 저들이 살던 주거지를 보면 너희에게 명백하여 질 것이라 사탄은 그럴듯한 행위로 저들을 유혹하여 저들을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하였노라 저

들 백성에게는 지혜와 기술도 있었노라(29:38)

나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세대를 멸망케 했나니 이제 저들이 살았던 저들의 주거지는 황폐화되고 초라한 것뿐이라 그리고 이제 상속자가 된 것은 나이니라(28:58)

현세의 삶은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는 마음이 편안해지며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된 징벌이 닥칠 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그리하면 죄인들이 말할 것이라 주여 얼마 동안만 유예하여 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부름에 복종하고 사도들을 따르겠습니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하지 아니 했더뇨 너희가 죄인들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에게 분명히 밝혔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분명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느니라(14:44-45)

9) 자신보다 낮은 자를 바라보는 것

재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별로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재물을 잃고 나면 그때서야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자신보다 적게 가진 자를 쳐다봐야 한다. 몸은 아프나 걸을 수 있는 자는 병상에 누워 있어 걸을 수 없는 자를 보아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자보다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바라보고 자신보다 많이 가진 자보다 적게 가진 자를 바라다보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알-부카리, 무슬림)

사지가 건강한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억만장자를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불평을 털어놓자 그 억만장자가 그에게 물었다.

"백억을 줄 테니 당신의 눈을 나에게 팔겠소?"

그러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가난한 자가 대답하자 이번에는 백억을 제시하면서 그의 간을 팔라고 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백억을 줄 테니 그의 손을 팔라고 하였다. 역시 백억을 제시하면서 그의 다리를 팔라고 하자 이번 역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불구의 그 억만 장자가 말하길,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불평을 합니까?"

그러나 내세와 관련해서는 자신보다 위에 있고 높이 있는 자

를 바라다보면서 그 보다 더 위에 그 보다 더 놓은 곳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가장 높이 있고 가장 등급이 놓은 피르다우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10)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만족을 통한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꾸란과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가 사라진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저들 중 일부에게 준 현세의 영화에 그대의 눈을 돌리지 말라 실로 나는 그것을 통하여 저들을 시험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가장 좋은 것이요 영원한 것이니라(20:131)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슬림)

속세를 사랑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다.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인간은 금으로 가득한 두 계곡을 갖고 나면 세 번째의 금 계곡을 갖고 싶어 하지요.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흙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알-부카리)

예언자께서는 속세에 대한 욕망을 줄이며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아침에 건강한 상태로 일어나 그 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자는 그가 필요로 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이지요."(티르미지)

예언자의 이 말씀을 음미한 자는 바로 이것이 그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일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내일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언제 어떤 이유로 없어질지 모를 일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말의 시각은 하나님만이 아시니라 비가 내리는 것과 태아에 임신이 되는 것과 너희가 내일 무엇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어느 곳에서 죽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31:34)

11)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분께만 의지하는 것

모든 만사를 관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시고 주고 싶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신다. 원하시는 자에게만 권력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원하시는 자에게만 명예를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통치권을 빼앗기도 하시며 또 영광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십니다 선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지니셨습니다(3:26)

인간이 섭취할 모든 양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친의 태아에서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러분 각자는 40일 동안 아주 미세한 방울(nutfah)로 모친의 자궁에 있다가 한 방울의 피(alaq)가 되어 비슷한 기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 후 세포(mudghah)가 되어 역시 비슷한 기간

동안 있게 되지요. 이 기간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 이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지요. 그리고 이 생명에 네 가지 운명이 내려집니다. 먹을 양식과 수명과 행위와 행복과 불행입니다. 그는 그와 천국 사이가 한 팔 사이만큼 될 때까지 천국의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의 운명은 지옥이 되어 그곳으로 들어가지요. 그는 그와 지옥 사이가 한 팔 사이만큼 될 때까지 지옥의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의 운명은 천국이 되어 그곳으로 들어가지요."(알-부카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현세의 양식을 먹고 정해진 생명을 다한 후에 이 세상을 떠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할당한 모든 양식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오. 당신이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지연될 때 부정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진정한 행복은 불만족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할당한 것에 만족할 때 오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

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여성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하며 여성들이 재혼하려 할 때 방해하지 말라 너희가 그녀들에게 준 것의 일부를 빼앗기 위해 그녀들을 학대해서도 아니 되니라 그러나 그녀들이 분명한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는 예외라 여성들에게 친절해야 되느니라 만일 너희가 그녀들을 싫어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행의 일부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4:19)

싫어했던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좋아했던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록 싫어할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성전이 의무화 되었느니라 너희가 싫어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있고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너희에게 악이 되는 것이 있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2:216)

13) 물질보다 신성한 지혜를 더 좋아하는 것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속세의 물질적인 것보다 더 좋은

신성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베푸심에 우열을 두셨노라 그러나 부여받은 양식으로 부유한 자들은 그의 오른 손이 소유하고 있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니 공평하지 못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 하노라(16:71)

보라 내가 어떻게 저들 가운데 우열을 두었는가 내세에서는 그 우열함이 더욱 더 크니라(17:21)

14)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갖고 탐내지 아니하며 물질적 삶을 갈망하지 않을 때 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나의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제한도 하시니라 또한 너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보상을 하시거늘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

니라(34:39)

이러한 부러움과 시기심과 욕망은 행복의 요소인 만족에 장해물이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많이 받는 자가 있나니 시기하지 말라 남성은 그들이 얻은 것 가운데서 그의 몫이 있고 여성도 그들이 얻은 것 가운데서 그녀의 몫이 있나니 서로를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4:32)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을 보시지 않고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지켜보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현명한 자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그가 무엇을 해왔으며 내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이지요. 실패한 자는 속세의 욕망을 따르고 천국을 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자이지요."(티르미지)

15)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는 것

진정한 행복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을 때 온다. 미움, 불평불만, 마음의 원한,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파괴하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병의 원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베푼 것에 대하여 그들은 시기하느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성서와 지혜를 주시었고 위대한 왕국도 주시었느니라(4:54)

시기와 실투에서 오는 오만함은 최초로 죄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창조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이블리스에게 명령했을 때 이블리스는 아담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블리스가 말하길 당신께서는 나보다 이 인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심판의 날까지 유예하여 준다면

나는 분명히 그의 자손들을 소수만 제외하고 모두 멸망하게 만들 것이요(17:62)

예언자께서는 인간에게 이블리스의 시기와 질투를 경고하였다.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서로가 가격을 부채질 하지 말고, 서로가 미워하지 말고, 서로가 외면하지 말고, 서로가 가격을 인하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형제가 되시오. 무슬림은 무슬림의 형제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박해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의 실패를 바라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소하지 아니합니다.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무슬림이 무슬림을 조소하고 경멸하는 것은 죄입니다. 무슬림에게는 세 가지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무슬림의 생명과 재물과 명예가 바로 그것입니다."(무슬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 이후에 온 자들이 말하길 주여 저희와 저희 이전에 믿음을 가졌던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믿는 자들에 대한 시기심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실로

당신은 관대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59:10)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고 간구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형제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당신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무슬림)

16) 거만하지 않는 것

진정한 행복은 오만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갈 때 오는 것이다. 거만한 자는 절대 행복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증표에 대하여 아무런 권위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하는 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라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보기에 매우 증오스러운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마음을 닫아 버리시니라(40:35)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마음에 개미 한 마리 무게에 해당하는 오만함을 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

"사도님, 저희 중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정말이지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는 진리를 거역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지요."(무슬림)

17) 인색하지 않는 것

이슬람은 인색함을 경멸한다. 인색함은 사람들을 인색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인색한 자는 자신의 재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재물을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자신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선행을 하지 못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축적한 재물을 사용하는데 인색해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인색함은 더욱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인색했던 것들이 심판의 날 그들의 목을 조아릴 것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유산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3:180)

인색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불지옥을 피하게 되지요. 그러나 인색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불지옥에 다가가지요. 알지 못하지만 너그러운 자는 믿으면서 인색한 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지요." (티르미지)

이슬람은 인색함을 혐오하고 자선을 촉구한다. 재물로 자선을 베풀지 않는 자는 종국에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잃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매일 두 천사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재물을 바친 자에게 보상을 하여 주시고 그에게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인색한 자는 그의 재물을 잃게 하여 주소서'"(알-부카리)

예언자께서는 인색함이 공동체와 사회에 큰 위험이 된다는 것

을 분명히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정한 행위를 두려워하시오. 그것은 부활의 날 크나큰 어둠이 될 것입니다. 인색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시오. 여러분 이전에 인색했던 자들은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인색함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가족의 신성함을 파괴합니다."(무슬림)

이러한 것들은 믿음을 감소시키는 요소들이므로 이슬람은 이를 단호히 배제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색함은 공존하지 않습니다."(니싸이)

18) 인내하면서 희망을 갖는 것

진정한 행복은 매사에 인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때 온다. 인내는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요소다. 인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인내하라 인내함에 경쟁하며 단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니라(3:200)

현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시험하는

기간이다. 생명과 가난으로 시험하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기아로 그리고 재물을 축내고 생명을 잃게 하여 시험하고 과실 수확을 축내어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주실 것이니라(2:155)

인내와 함께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자 실로 그는 의지가 곧은 자이니라(42:43)

인내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를 사랑하시니라(3:146)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자에게 완전한 보상을 약속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내하는 자들은 계산 없는 보상을 받느니라(39:10)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인내하여 얻는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은 없지요."(알-부카리, 무슬림)

인내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나면 그 난관으로 겪었던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난 뒤에는 편안함이 있느니라 실로 고난 뒤에는 편안함이 있느니라(94:5-6)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승리는 인내의 결과이며 안심은 고민과 번민에서 오는 결과요 편안함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서 오는 것이지요."(하킴)

인내의 종류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내가 있다. 다음

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인내하였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최후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니라(13:24)

두 번째는 나쁜 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내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는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과 함께하되 허식에 불과한 현세의 삶을 원하여 그대의 눈이 그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을 염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그의 경우는 모든 범주를 벗어난 것이니라(18:28)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내리는 재앙에 직면할 때의 인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재앙도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을 인도하시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64:11)

어떤 재앙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기도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도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재앙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이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아흐마드)

진정한 행복은 매사에 화내지 않고 감정을 억제할 때 찾아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이들은 큰 죄를 피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피하며 화가 날 때 용서하는 자들이라(42:37)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화를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은 현세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강한 자란 타인을 힘으로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화가 날 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이지요."(알-부카리, 무슬림)

20)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이러한 박애정신은 공동체에 사랑을 보급하는 원동력이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유할 때나 어려운 때를 가리지 않고 자선을 베풀며 화내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니라(3:134)

하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무슬림들에게는 현세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친절과 사랑은 마음의 미움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행복과 형제애로 가득 채워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행과 악행이 같을 수 없노라 그러므로 더 좋은 선행으로 악을 물리치라 그리하면 그대의 적도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니라(41:34)

21) 매사에 긍정적 사고와 희망을 갖는 것

진정한 행복은 실망을 잃지 않고 매사에 희망을 가질 때 찾아온다.

이에 본보기가 되어주신 분은 바로 예언자이셨다.

"그분께서는 매사에 낙관적인 것을 사랑하셨고 비관적인 것

은 싫어하셨습니다."(알-부카리)

22)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진정한 행복은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상대방에 대하여 정탐을 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상대방에 대한 염탐과 험담은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되도록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죄가 되는 경우도 있느니라 서로 염탐하거나 험담하지 말라 너희 중에 죽은 형제의 살을 먹고자 하는 자 아무도 없느니라 실로 너희는 그것을 싫어할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니라 인간들이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를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되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니라(49:12-13)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것은 거짓의 웅변입니다. 정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음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는 형제가 되시오."(바이하끼)

23) 착한 마음과 바른 행위를 하는 것

진정한 행복은 착한 마음과 바른 행위를 할 때 찾아 온다 이슬람은 착한 마음, 좋은 생각 그리고 바른 행위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를 잊고 현재만 생각하며 미래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혼이 말하길 오 슬프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린 나의 임무에 무관심하고 조롱한 자 가운데 있었단 말이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더라면 나는 의로운 자 중에 있었을 텐데 징벌을 목격하고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선을 행하는 자 중에 있으련만 하고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39:56-58)

다음은 한 저명한 작가가 남긴 글이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보

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 당신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시간은 당신이 현재 해야 할 일들을 방해할 뿐이다."

24) 하나님을 위해 베푸는 것

진정한 행복은 받을 때가 아니라 베풀 때 찾아온다.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입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주고, 어려움에 직면했거나 재앙을 당한 자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의 행복은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친척과 필요한 자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집을 떠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아니하려고 맹세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관용을 베풀도록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느뇨 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니라(24:22)

이슬람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자만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이 쌓은 업적을 손상시켜 진정한 행복을 얻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네가 바치는 자선을 상기시키거나 뒷말하여 이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는 곧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하나님과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그것은 매끄러운 돌과 같나니 그 위에 한줌의 흙이 덮여 있으나 폭우가 내려 그것을 쓸어가 버리고 벌거벗은 돌만 남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2:264)

베풀 것이 없다면 친절한 언행과 꾸밈없는 미소가 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베푸는 물질보다 친절한 말 한마디와 순수한 미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훌륭한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친절한 말 한마디와 잘못에 대한 용서는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자선보다 더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풍요하시고 관대하신 분

이시니라(2:263)

이슬람은 하나님의 계율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해가 되는 언행을 삼가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전부터 이 도읍에 살면서 가정을 갖고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이주하여 온 이주민들을 사랑하였고 이주민들에게 베풀어진 것에 대하여 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난하면서도 자신들보다 더 이주민들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탐욕하지 않고 마음이 인색하지 아니했던 이들이 바로 번성할 자들이니라(59:9)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야지드 형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그가 대답하길, "예, 사도님" 그러자 예언자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길,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시오."

25) 선행을 권장하고 악행 금지를 촉구하는 것

선행을 권장하고 나쁜 행위를 경고하면서 악행을 퇴치하는 것

이다. 서로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으로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선행을 촉구하고 계율을 지키며 악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번성할 것이니라(3:104)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종교는 진정한 충고입니다."
누구를 위한 충고이냐는 질문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의 성서와 그분의 사도와 무슬림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이지요."(무슬림)

26) 도움이 필요한 자 돕고 자선을 베푸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인내하고 예배하며 내가 그들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으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풀며 사악함을 선으로 대처해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이들의 최후 거주지는 천국이니라(13:22)

27)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유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명분을 위해 중재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요 나쁜 것을 위해 중재하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대가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니라(4:85)

예언자께서는 사람들이 찾아와 무엇인가를 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당신의 형제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보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알-부카리)

28)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

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행위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여 주는 것, 재난을 당한 자를 도와주는 것,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남을 돕는 자가 모스크에서 한 달 동안 체류(itikat)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보다 나의 사랑을 더 받지요. 화가 날 때 참고 인내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제하는 자는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쁜 마음과 악한 행위는 식초가 꿀을 망쳐놓은 것처럼 착한 마음과 선한 행위를 파괴할 것입니다."(타바라니)

이슬람을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처럼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페르시아 왕 루스탐이 예언자의 한 교우에게 페르시아에 온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인간을 숭배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인간을 존재케 한 창조주를 숭배하게 하고, 속세에 억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해방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만끽하게 하고, 강요와 억압에 의한 믿음으로부터 해방시켜 평화와 정의의 믿음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대항하여 성전하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상숭배를 단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실 것이니라(8:39)

무슬림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비무슬림들에게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께 보여주신 모범이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다.

"말리크의 아들 아나스에 의하면 사도께서도 베풀기만 하셨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을로 돌아가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길, '고을 사람들이여, 이슬람을 받아들이세요. 예언자 무함마드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주기만 해요.'"(이븐 쿠자이마)

5.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이분들은 인간이 본받아야 할 우리의 스승들이다. 그러므로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이맘 이븐 까이임은 '자드 알-마아드'라는 그의 저서 5권 7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예언자들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준 것에서 얻

을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명칭과 속성, 행위와 규범을 통하여 창조주를 알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들을 피할 때 마음은 건전할 수 있다.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안내를 통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다. 물질과 세속적 욕망은 정신과 영혼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6. 종말에 대한 믿음

종말과 함께 이어지는 부활, 부활된 후 업적에 대한 계산과 그에 따른 보상이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면 마음이 안정을 찾고 영혼이 편안해진다. 비록 현세에서는 억압을 받고 권리를 회복할 수 없어도 내세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권리를 되돌려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마음과 영혼이 안정을 찾고 편안해진다.

내세에 가서 받는 보상의 기준은 현금이 아니라 업적에 근거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교우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파산자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교우들이 대답하길,

"일전 한 푼 없고 재산 하나 없는 자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파산자란 나의 공동체 출신으로 예배, 금식, 자선 등 큰 업적을 쌓았으나 그가 저지른 부당한 행위가 많은 자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가 쌓은 선행의 업적들은 그로부터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모두 돌아가고 핍박받은 자들이 잘못한 모든 죄는 핍박한 자들에게 모두 돌아가니 그들은 불지옥에 버려지지요."(무슬림)

하나님은 행위에 대한 계산과 그에 대한 보상을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적용하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모든 권리는 그것의 소유자들에게로 돌아가지요. 수컷의 뿔에 받힌 암컷은 수컷의 뿔을 취하여 그것으로 수컷을 받지요."(이븐 힙반)

종말을 믿는 자는 현세에서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도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내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믿는 나의 종들을 위해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들어보지 못했으며, 마음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준비하셨느니라."

그런 후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원한다면 암송하여보시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눈을 기쁘게 할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느니라(32:17)

믿는 자는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떠한 고난도 쉽게 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현세에서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가 내세에 가면 불지옥의 사람이 되지요. 그는 앞으로 끌려나와 불지옥에 잠시 잠기어졌다가 꺼내진 후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아담의 자손아, 어떤 좋은 것을 보았느냐?'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무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현세에서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해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내세에 가면 천국의 사람이 되지요. 그가 잠시 천국에 들렸다가 나오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담의 자손아, 어떤 나쁜 것을 보았느냐?'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무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슬림)

7. 운명과 숙명(qada and qadar)에 대한 믿음

믿는 자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운(khair)이나 불운(sharr)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그분께서 결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너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라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23.** 이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에 관하여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푼 은혜에 관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자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57:22-23)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젊은이들에게 몇 가지 충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간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도움을 청할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아니하셨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록은 이미 끝났고 잉크도 이미 말라버렸습니다."(하킴)

운명과 숙명에 대한 믿음은 행복의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이므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안정을 취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더 많이 받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보다 강한 자 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시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렇게 혹은 저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면 사탄에게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무슬림)

놓쳐버린 기회를 후회하거나 이미 지나간 버린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보고 미래를 보며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질병들은 대부분 정신적 불안과 초조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운명과 숙명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이러한 병들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운명과 숙명을 믿는 자는 근심걱정, 불안과 초조함을 쉽게 극복하면서 현대사회에 만연한 정신적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1) 두려움의 종류와 치료

이슬람은 근심걱정, 불안과 초조, 두려움에 대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먹고 살 양식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누구나 먹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전체를 일터로 펼쳐주시면서 누구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준비해 주시고 방법도 제시해 주셨다. 하늘에도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내세의 모든 양식까지 준비하여 두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에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며 또한 너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 있느니라(51:22)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진리만을 말씀하신다. 하늘에도 인간을 위한 양식이 있다고 하셨다. 대지

에 비를 내리시어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식물과 가축을 자라게 하여 주신다.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듯이 인간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도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위한 양식을 약속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땅 위의 어떤 동물도 그의 양식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것이 없노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사는 곳과 그것들이 있는 곳을 아시나니 모든 것이 성서에 분명히 쓰여 있노라(11:6)

아무리 미약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양식을 할당하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피조물이 얼마나 많으뇨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듣고 아시는 분이시니라(29:60)

동정녀 마리아가 가장 나약하고 허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가 먹을 양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려나무 줄기를 네가 있는 쪽으로 흔들어라 그러면 신선하고 잘 익은 종려나무 열매가 너에게로 떨어질 것이니라(19:25)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열매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잘 익은 최상의 열매를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힘들이지 않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나무를 흔들기만 하면 열매가 그녀의 손이 닿은 곳에 떨어지도록 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위해서도 양식을 제공하신다. 동물들에게는 인간들보다 더 쉽게 먹을 양식을 얻도록 하셨다. 인간을 위한 양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면 그분께서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새들은 위가 텅 빈 상태로 둥지를 떠나 가득 채워 돌아오지요." (이븐 마자)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낙타를 풀어놓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예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낙타를 매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시오."(이븐 힙반)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양식을 할당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먹고 살 양식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이 소모될까 두려워 사용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는 인간이 인색하기 때문이라(17:100)

(2) 해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질병이나 재난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두려워한다고 해서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거두어 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축복을 내리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가운데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대하시고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니라(10:107)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믿는 자의 매사가 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복이 되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하여 인내하면 복이 되지요."(무슬림)

예언자께서는 인간에게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로인한 아픔을 완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치셨다.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며 예언자께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 자식의 두 눈이 돌처럼 굳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흐느껴 우셨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싸으드 빈 우바다가 예언자에게 말하길,

"사도님, 왜 우십니까?"

이 물음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내려주신 하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 많은 그분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알-부카리)

환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학적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여, 의학적 진료를 받으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두실 때 그에 따른 치료도 두셨기 때문입니다."(이븐 힙반)

그러나 불법적인 진료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료 외에 다른 방법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아부 후라이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불법적 진료나 비의학적 치료방법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각 질병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을 모르는 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치료를 받지요."(이븐 힙반)

(3)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땅 위의 모든 것은 소멸하나 지고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니라(55:26-27)

죽음을 피할 수 인간은 아무도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느라 그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저지른 모든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니라(62:8)

그러므로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죽음을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을 이용하고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요 필연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민족에게 정하여진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이 이르면 그들은 단 한 시간도 그것을 유예하거나 앞당길 수 없느니라(7:34)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약하거나 믿지 않는 자다. 종말을 믿고 내세와 부활 그리고 계산과 보상을 믿는 자는 분명히 편안할 것이다. 죽음을 믿는 자는 사후 세계를 위해 더 좋은 일을

하려하므로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구성원이 된다. 그는 닥쳐올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폭군의 어떠한 억압과 학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 * *

나가면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한 이슬람을 들여다본 후 이슬람의 진실을 확신하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묻는다면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비논리적인 것을 발견할 수 없고 논리가 합리적이다. 그 답에서 내 정신이 안정되고 내 영혼이 평온해 진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준수하며 그분께서 금기한 것을 멀리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나의 모든 권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 남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그 안에 인간이 지향해야 할 선행과 도덕적 예절 그리고 삼가야 할 비윤리적 매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완벽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고 물을 때 이슬람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무슬림이어서 이슬람을 전파할 목적으로 그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무슬림들 중에서도 이슬람은 완벽한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무슬림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다.

서구의 많은 비무슬림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우리스 가우디프로이(Maurice Guderfroy)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함마드는 예언자였을 뿐 신학자가 아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와 함께 했던 초기 무슬림 공동체의 엘리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된 법을 지키고 무함마드의 가르침과 그의 모범을 기꺼이 따르면서 만족해하였다."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의 군사적 승리는 자랑도 아니었고 영광도 아니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기간에도 그는 평소에 그래왔던 것처럼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역대 모든 권력자들의 생활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하물며 그를 예우하기 위해 꾸며놓은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싫어하였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슬람법은 왕관을 쓴 절대 권력자에서부터 가장 천한 하인들까지, 가장 현명한 자들에서부터 가장 우둔한 자들까지,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에서부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함께 함께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마골리우스(Margoliouth)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꾸란은 전 세계 모든 경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가장 늦게 마지막으로 온 것이지만 이전에 온 성

서들보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슬람을 자신들의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슬람 종교가 삼위일체가 아닌 일위일체의 하나님을 요구하기 때문일까? 절대자 한 분,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인가? 모든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인가? 정의를 촉구하고 불의를 타도하고 있기 때문인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가?

1천 4백 년 전 이슬람이 회복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앞으로도 선입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슬람을 들여다 본 사람은 누구나 이슬람을 받아들일 것이다. 설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은 갖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각 국가의 무슬림들을 보자. 정치적 압박이나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구소련 지배하의 무슬림들은 70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다. 모스크들이 파괴되고 비무슬림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했으며 공개적 신앙생활도 금지되었다. 그런데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다시 등장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떤 힘 때문일까? 그곳의

무슬림들이 주어진 운명을 탓하지 않고 매사에 만족하며 신앙을 지켜온 힘이었다.

편견과 선입감 없이 이슬람을 연구한 자는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슬람은 더 나은 것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예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슬람은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여, 현세에서도 행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행복을 주소서 그리고 불지옥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2:201)

이처럼 이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각 종교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슬람의 진리는 경험해 보지 않는가! 그들이 경험해 본 각 종교에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인가? 때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단호한 결심이 필요하다. 문제는 둘 중 하나다.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행복을 성취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인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기 바란다. 이슬람은 왜 밤낮으로 미디어에서 다른 종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까?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면 적대시 한다. 자신이 모르면 적대

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공부하고 전파하여 이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첫 단계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행복의 길로 안내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진실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행복의 길로 안내하여 주실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에게 간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답하여 주리라 그러나 교만을 피우며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경멸을 당하며 지옥에 들어갈 것이니라(40:60)

왜 서구의 많은 저명한 작가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사상가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슬람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왜곡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꾸란을 통해서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구 미디어의 반 이슬람 보도와 선동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슬람을 잘 이해하면서도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를 지킨 서구인들도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분이 토마스 카릴

리(Thomas Carlyle) 같은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꾸란에 관한 사실과 진리를 말하고 이슬람에 대한 진리를 말했다. 이들 중에는 이렇게 말한 자도 있다.

"무함마드를 인류의 구세주라고 로 불러야 한다. 이런 인물이 현대 세계의 지도가 된다면 현대 시대의 제반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하여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 가 있다."

저명한 극작가이자 평론가인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950년 사망)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내 마음에 항상 무함마드의 종교를 간직해 오면서 그 종교의 생동감을 높이 평가해 왔다. 시대의 변화를 흡수하는 유일한 종교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유럽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처럼 내일도 이슬람 종교는 퍼져나갈 것이다. 중세 기독교 성직자들은 알지 못해서 혹은 편협한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이슬람을 가장 어두운 색깔로 표현하면서 무함마드란 인물을 싫어하고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무함마드는 적그리스도였다. 그런데 내가 공부해 본 결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로 불러야 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다."[4]

다음은 무함마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한 하나님의 말

4) Encyclopedia of Sirah, Afzal Al-Rahman.

씀이다.

그대는 그대가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모두 인도하시며 또한 누가 인도를 받을 자인가를 가장 잘 아시니라(28:56)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시지만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러분 각자는 40일 동안 아주 미세한 한 방울(nutfah)로 모친의 자궁에 있다가 한 방울의 피(alaq)가 되어 비슷한 기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 후 세포(mudghah)가 되어 역시 비슷한 기간 동안 있게 되지요. 이 기간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 이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지요. 그리고 이 생명에 네 가지 운명이 내려집니다. 먹을 양식과 수명과 행위와 행복과 불행입니다. 그는 그와 천국 사이가 한 팔 사이만큼 될 때까지 천국의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의 운명은 지옥이 되어 그곳으로 들어가지요. 그는 그와 지옥 사이가 한 팔 사이만큼 될 때까지 지옥의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의 운명은 천국이 되어 그곳으로 들어가지요."(알-부카리)

이슬람을 비방하고 공격할 목적으로 이슬람을 연구한 서구의 동양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슬람의 합리적 지식과

순수한 정통성을 발견하고서는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데보라 포터(Deborah Potter)[5]라는 여성 학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산들이며, 대양, 태양과 지구, 유성이나 별들 모두가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지 않는가! 우주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있다. 소설속의 주인공들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예증이다. 작가가 쓴 소설속의 주인공들은 작가가 묘사하고 있는 말도 못하고 행위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우주의 미세먼지 하나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면 인간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과 인간 자신들이 제정한 법과 종교 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다수 인간이 후자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비방하고 붕괴시킬 목적으로 동양을 연구하던 서양의 기독교인

5) 1954년 미국 미시건 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미시건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이 여성에 관한 것은 이마드 딘 칼릴(Imad al-Din al-Khalil)이 쓴 "그들은 이슬람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가?"라는 그의 저서에 근거한 것이다.

학자들이나 목사들까지도 무슬림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이슬람의 진리를 발견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슬람 종교 그리고 변질되기 전의 기독교와 유대교는 동일한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종교였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유대교가 변질되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는 본래의 종교로 회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기독교마저도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해 전에 없었던 삼위일체가 도입되면서 하나님의 종교가 인간이 개입된 종교로 변질되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본래의 종교, 즉 이슬람으로 회복된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한 종교는 이슬람이니라."(3:19)

그와 더불어 변질과 왜곡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시공을 초월한 모든 인간을 위한 완벽한 최후의 종교로 남게 되었다.

이슬람이 정확하고 주장한대로 그렇게 위대하다면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매달렸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슬람을 지키지 않은 한 두 명의 무슬림, 혹은 천 명의 무슬림을 보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다. 이런 몇 명의 무슬림을 두고 18억 전체 무슬림을 그런 방향으로 연관시

키는 것은 모순이다. 이슬람을 생활의 종교로 준수하는 무슬림들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무슬림들도 있다. 지키지 않는 무슬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교통신호는 운전자들과 일반 모든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준수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빨간 신호들이 켜질 때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하다. 이런 몇 사람을 보고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법자들이며 이 제도가 불합리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몇 차례 지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는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무슬림을 보고 이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이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용기도 필요하며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의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모두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

* * *

용어풀이

1. 디나르(dinar): 화폐의 명칭
2. 디르함(dirham): 화폐의 명칭
3. 하디스(hadith):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과 전통
3. 이으티카프(itikaf): 일정 기간 동안 외부와 단절하고 모스크에 들어가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행위
4. 이만(iman): 믿음
5. 잔나(jannah):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준비하여 둔 천국
6. 샤이탄(shaitan): 사탄
7. 샤리아(shari'ah): 이슬람법
8. 순나(sunnah): 예언자 전통과 규범

최영길 교수의 이슬람 및 아랍어 총서

▷ 저서 및 역서

01. 아랍어를 배우는 길(1978. 11, 이슬람문화센타, 207쪽; 사우디)
02. 생활아랍어 회화(1982, 도서출판 콘바사폰, 617쪽)
03. 하디스 40선(1982. 12. 24, 신생사, 184쪽)
04. 이슬람의 거래와 관습(1979, 이슬람문화센타, 173쪽; 사우디)
05. 기본아랍어회화(1980. 9. 16, 어학사, 255쪽; 서울)
06. 아랍어문법해설(1982. 2. 1, 명지대 아랍어문학과, 212쪽)
07. 이슬람의 생활규범(1985, 명지대출판부, 450쪽)
08. 16억 이슬람인의 역사와 문화(1996, 송산출판사, 465쪽)
09. 이슬람문화사(1990, 송산출판사, 434쪽)
10. 꾸란의 이해(1995, 성천문화재단, 207쪽)
11. 꾸란해설(1989, 송산출판사, 1370쪽)
12. Arabic Language I (1986,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200쪽; 공저)
13. Arabic Language II (1988,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200쪽; 공저)
14. 이슬람문화의 이해(1997. 2. 28, 신지평, 252쪽 ; 서울)
15.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해설(1997. 4. 24,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403쪽; 사우디)
16. The Holy Quran -Korean translation of the meanings, commentary and reading(1997, Anyang Rabita Masjid)
17. Drusu al Lugat al Arabiya(1997, Islamic University, Medina; 사우디)

18.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98. 7. 27, 신지평, 600쪽)
19. Islamic Thoughts(1998. 10. 1, 송산, 232쪽 ; 서울)
20. The Expanse of the Religious Thoughts(98. 10. 1, Songsan, 222쪽)
21. 아랍어-한글사전(99. 3. 20, 송산, 1630쪽)
22. 이슬람의 이해(99. 3. 20, 신지평, 416쪽)
23. 이슬람문화(99. 9.5, 알림 도서출판, 434쪽)
24. 이슬람 교리의 법규(2000. 4. 10, 알림 도서출판, 145쪽)
25. 라마단(2000. 11. 12, 알림 도서출판, 370쪽)
26. 무함마드 어록(2001. 6. 27,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194쪽)
27. 이슬람(단식과 성지순례; 2001, 10. 30, 알림, 239쪽)
28. 이슬람의 전통과 생활관습(2002.11.25, 알림, 384쪽)
29. 꾸란 단어와 어휘해설(2003, 알림,)
30. 꾸란과 이슬람(2004.10.15, 알림, 181쪽)
31. 이슬람의 위인들(2004.11.05, 알림, 235쪽)
32. 예언자 무함마드(2005. 02. 28, 명지대학교 출판부, 130쪽)
33. 아랍어(2005 ,02.28, 명지대학교 출판부, 244쪽)
34. 무함마드와 이슬람(2005. 03. 05, 도서출판 알림, 282쪽)
35. 삼위일체 아랍어(2005. 09. 01, 도서출판 알림, 299쪽)
36. 꾸란 어휘사전(2005.12.10, 도서출판 알림, 11285쪽)
37. 이슬람과 성서의 종교(2006. 02.28, 명지대학교 출판부, 242쪽)
38. 이슬람국가에서의 비무슬림의 권리(2006, 05, 15, 알림, 221쪽)
39. 인간 무함마드(2006,07,25, 알림, 578쪽)
40. 실전 아랍어(2006, 08, 10, 명지대 출판부, 255쪽)
41. 아랍어와 아랍문화((2007, 02, 28, 명지대 출판부, 212쪽)
42. 꾸란과 해설(2007,06,01,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905쪽)
43. 이슬람(원리와 개론; 2007. 9.1, 도서출판 알림 240쪽)

44. 한국인을 위한 삼위일체 아랍어((2007, 08, 20, 명지대 출판부, 246쪽)
45. EBS 입에서 톡 아랍어(2008. 2. 1, 도서출판 문예림 262쪽)
46.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1권(2008. 2. 15, 알림, 297쪽)
47.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2권(2008. 7. 10, 알림, 298쪽)
48.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3권(2008. 10. 25 알림, 287쪽)
49.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4권(2008. 12. 5 알림, 286쪽)
50.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5권(2009. 4. 24 알림, 244쪽)
51.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2009. 5. 4 살림, 335)
53. 이슬람교가 태어난 석유왕국 사우디아라비아(2009. 그레이트북)
54.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제1권(2010. 03. 10, 알림, 443쪽)
55.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제2권(2010. 07. 05, 알림, 451쪽)
56. 꾸란 주해(2010. 05. 25, 세창, 946)
57.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제2권(2010. 07. 05, 알림, 512쪽)
58. 이슬람문화(2010. 08. 25, 알림, 512쪽)
59.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2011. 07.30, 세창 408쪽)
60. 한국어-아랍어 소사전(2012, 04, 25; 문예림 193쪽)
61. 하람 성원(2012,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62. 예언자 성원(2012,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63. 키스와(2012,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64. 한글 - 아랍어 소사전(2012. 12, 문예림 200쪽)
65. 나의 이슬람문화 체험기(2012, 05, 30: 한길사 277쪽)
66. 노래로 배우는 아랍어(2013.05 30 문예림 246쪽)
67. 초보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2013.06.30: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대학교 통번역센터, 376쪽)
68. 아랍어-한국어, 한국어-아랍어 입문소사전(2014.01.03, 문예림 1192)
69. 성꾸란, 낭독법칙, 의미, 해설(2014. 알림, 30권 시리즈)
70. 인생교과서 무함마드(2015, 21세기 북스, 212)
71. 이슬람과 에티켓(2015, 사우디아라비아 275쪽)
72. 이슬람의 로맨스

행복으로 가는 길 (비매품)

인 쇄 일 | 2016년 2월
발 행 일 | 2016년 2월

지 은 이 | Prof. Dr. Abdurrahman Al-Sheha 저
옮 긴 이 | 최영길

발 행 처 | 도서출판 알림
02) 2267-9777
발 행 인 | 박영주

등 록 일 | 1998. 9. 7.
등록번호 | 제 2-2647호

ISBN : 89-91180-